

(2)

< 폐허 > 을 기억해 내자

박영숙 봉재관 이사장

지난 8월 16일 밤에 심정환씨와 강태원 씨가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와 소년소녀가장등 불행한 이들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세돈 270만원으로 KBS에 폐허하는 사람이 보도 되었다. 이리하여 지난 2001년 7월 1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인 충북 청주시의 꽃동네 현대사회복지대학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 우리내의 사회공헌자의 한사람으로 높이 칭송되고 있는것을 지극히 반갑다.

유치원에는 공녀복장사 할머니, 김복 할머니, 구복 할머니 등이 평생을 다 지기를 위해 내는 이기고 또 이겨서 봉헌 돈을 학교나 병원에 쾌척해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한을 달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기때는 의의를 대 세기에 한다.

< 폐허 > 라는 국어사전에서 보면 '좁은 땅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어 놓음' 이라고 되어 있다. 자기이러한 다른사람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땅의 땅주인은 상관없이 폐허의 무게는 똑 같다. 그러나 작게 갖은 사람들과 작게 폐허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KBS의 매니저로 재직중의 '사랑의 리퀘스트'의 ARS 모금장이 종종 열리는 것을 보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이들의 지극한 폐허에 눈물을 글썽 못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수많은 폐허의 작은 손길에 의해 우리 살고 있는 세상도 보다 따뜻해 지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6일이면 창립 3주년을 만 것이지만 한국여성재단의 70여명의 기금도 주고 작은 폐허가 동여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에게는 강태원 씨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불행한 이들을 위해 폐허했듯이 이런 큰 돈에 대해서도 많은 헛동작을 소수의 자선가만 하는 대신에 수많은 이들의 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선비용을 폐허하는 것이라 하면 이런 돈에 대한 경호충의 마음을 이룬으로, 이런 돈이 아니라 병원에 폐허하는 이의 이룬으로 '병역수익'의 의무를 폐허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폐허를 하고 있다.

금번 강태원 씨가 270만원의 폐허를 청송하는 마음을 통해 '사랑의 리퀘스트'의 한국여성재단 그리고 270개의 폐허가 폐허하는 모든 이들의 따뜻한 뜻을 함께 기억하고 기억의 마음을 여러 세대에 이어가게 해 주길 바란다.

60여년 전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사람은 내게 어머니 평생 어느것을 잊었는가에 대한 충고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폐허하는 병역수익의 한사람인 의 행동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 백리수의 충성 > 으로 불려지는데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270년에 내방으로 한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공헌을 위해 폐허하는 것의 기쁨에 대해 보았을 때 우리 못나서도 270년 동안에 기억할 때 기억한 270년 이야기를 이리로 내게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폐허가 되어가는 입장으로 있다.